사다리타기

(행16:6~15)

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8.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다리타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사다리타기 게임을 잘 아시지요?
오늘 점심 때 지인들과 더불어 한번 사다리타기 점심내기를 해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약간의 긴장이 있고, 참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 점심내기라고 할 때, 오늘 부대찌개를 먹기로 했다면, 부대찌개라고 쓰고 그 옆에 점심식사 후의 커피를 씁니다, 그리고 커피와 함께 먹을 디저트로 케익이라고 쓰고, 그 옆에 이 세 가지를 다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공짜'라고 씁니다.
그리고는 아래로 줄을 쭉쭉 그어요, 그 수직으로 그어진 줄과 줄 사이에 사다리의 난간을 만들 듯이 서로 엇갈리게 막 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대리, 미스 김과 미스터 박이 서로 하나씩 골라서 타고 올라가면 점심을 내야 될 사람이 있고, 커피를 내야 될 사람… 아, 그런데 미스 김이 정말로 운이 좋아서 공짜로 얻어먹는 자리로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혼자서라도 한번 사다리타기를 해보세요.

여기에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이 사다리타기 게임이 그려진 판 위에는 의도된 계획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계획에 근거되어진 논리적인 발전단계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김 과장님이 공짜라고 하는 항목을 마음으로 되씹고 굳게굳게 비전으로 마음에 그린다고 해도, 그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된 계획, 내 소원, 소원에 따른 비전, 이런 것이 성립되지 않고 오직 그 위에서는 우연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이런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 땅 위에서 펼쳐지는 우리 삶의 모습만을 볼 때는 완전히 사다리타기와 같은 삶입니다.
사다리타기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뜻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곳으로, 어떨 때는 우리 입장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낯설고 상상도 원치도 않았던 그런 삶으로 인도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다리타기와 같다는 얘기에요.
우리 입장에서만 보자면 우연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내 의도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 소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우연과 같은 그런 삶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완벽한 우연이에요, 사다리타기와 똑같아요.
이렇게 사다리타기와 같이 우연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삶 속에,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면 두 가지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일관성이라는 것과 사다리타기와는 정반대 입장에 서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사다리타기와 같은 우연이 지배하는 것같이 나의 소원과 나의 계획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삶 속에서 두 개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일관성은, 뚜렷하고 정말 일관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목표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의식이 내 삶을 진행시키는데, 내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일을 해야 될 때가 있

어요, 즉, 오늘까지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에 이어서 상식적으로 물 흐르듯이 그 다음 단계가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이 일이 막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어져나가야 되는 그 다음 단계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내 마음에서 소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허락되지를 않습니다.
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내 앞에 떡 하니 주어지게 됩니다.
사다리타기 같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될 일이 막히거나, 내가 간절히 마음에서 소원하던 일이 허락되지 않거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목표의식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에 있어서 불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느끼는 불통일뿐이지 내 삶이 불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은 내 마음이 막힌 것처럼 느낄 때라도, 내 마음에서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라도, 내 마음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주어진다고 느낄 때라도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의식에 의한 진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관성, 겉으로 보기에는 사다리타기와 같은 삶에서 또 하나의 일관성, 이제는 내가 유지해야 되는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표의식에 대한 일관성과 두 번째, 나에 의해서 지켜져야 될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사다리타기와 같은 인생 위에서 두 가지 일관성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팔레스틴과 아프리카를 염두에 두면 지중해가 디귿자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디귿자의 아래쪽이 아프리카, 디귿자의 수직으로 된 위치가 팔레스틴이고, 수평으로 된 디귿자의 윗부분이 지금의 터키지역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디귿자 수직부분의 위쪽 지점에 있고, 터키는 동서로 1000km 쯤 되는데, 지금 2차 여행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서쪽으로 중간 지점쯤입니다.
그게 바로 1차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로, 더베라든지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뭐냐 하면, 터키는 동서로 1000km인데 그 중간 500km 지점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1차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다가, 이제는 1차 전도여행에서는 가지 않았던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본문에 특이한 표현들이 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터키의 중간지점에서 서쪽으로 이동했을 때 맨 끝부분을 말합니다, 그 끝부분에 에게 해가 있고, 에게 해를 지나면 발칸반도 남쪽의 그리스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리스 지역을 말해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이.
그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불러서 결국은 이 터키 지역에서의 전도를 포기하고 에게 해를 건너서 그리스 반도로 넘어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리스 반도에서 첫 번째로 빌립보에서의 전도가 나타나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한 가정교회가 유럽대륙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럽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곳이 바로 빌립보이고,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가정교회가 빌립보 교회의 토대가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나와 무시아(터키의 서쪽 끝)로 왔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거기서 비두니아(터키의 북쪽)로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또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쪽 끝에서 조금 아래에 있는 드로아라는 항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항구에서 잠을 자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는 것으로 여기게 되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으로 선교여행이 진행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막힙니다.
그 다음에 무시아에서 터키 북쪽으로 전도하려는 계획을 갖게 되는데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생각도 상상도 하지 않았던 마게도냐 땅으로 하나님의 부름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구분이 간다는 얘기에요.
아시아라는 게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터키의 중간지점에서 서쪽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더베에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보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될 선교지역은 바로 터키의 서쪽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될 다음 단계가 막힙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될 것이 막히게 됨으로 이제 소원을 갖게 됩니다,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으로 가볼까?' 해가지고 북쪽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계획과 소원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정체상태에 있는데, 꿈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유럽대륙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게 바로 '사다리타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좌충우돌하고 있는데, 막히고 허락되지 않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곳으로 가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기 위해 강가로 나갔다가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데, 14절에 표현된 것처럼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게 해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집안이 다 믿게 되고, 그 집안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루디아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서 일단락됩니다, 일단 결론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중간지역에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이동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그리고 끝에 왔을 때 북쪽으로 이동해서 말씀을 전하려는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마게도냐로 이끄셔서 바울일행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목표가 뭐였냐 하면 루디아였던 거예요, 루디아.
이 한 여자의 마음속에 복음을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거리로 따지면 대략 700km 정도를 그냥 몰아가지고 그동안 사다리타기처럼 좌충우돌하며 어디로 꺾일지 몰라 이리 저리 꺾이고 방향이 진행되면서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말씀 하나를 떠억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유럽대륙의 첫 번째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아,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목표의식은, 이 바울일행의 전도여행이 막히고 허락되지 않고 전혀 뜻하지 않았던 곳으로 진행되는 동안에,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불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막히잖아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막으시는 것이라서 이게 불통이 아닙니다.
허락되지 않지요? 그것을 갖게 되면 안 돼서 허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
약속되는 겁니다, '반드시 통하고 있는 거다'
아무리 막히는 것 같고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 통하고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예기치 않게 막히고 허락되지 않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을 접하게 되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유지돼야 되는 일관성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세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터키 북쪽의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는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주의 영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역으로 부르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일관성이 뭐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막힐 때, 막히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성령을 보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고, 이게 간절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때, 허락되지 않는 상황을 보고 마음이 거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예기치 않은 상황을 보고 벌벌 떨고 낯설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막힐 때든지, 허락되지 않을 때든지,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주어지든지, 어느 때든지 그걸 보지 말고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가있는 거예요.

사다리타기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삶, 좌충우돌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일관되게 그 좌충우돌의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일관되게.
이것만 되면 하나님의 목표의식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볼 때, 새를 보시지 않고 새 속에서 그 새를 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봅니다.
백합화를 보실 때, 백합화를 넘어서서 백합화 이면에서 백합화를 키우고 입히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예기치 않게 진행되고, 내 소원이 막히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될 상황이 막힐 때, 우리는 막힘과 허락되지 않음과 뜻하지 않는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힌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막힌 상황에 대해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허락되지 않을 때, 허락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아쉬워하고 그것에 마음이 꽂혀 있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전혀 낯선 상황에 대해서 이게 뭐지,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말고 그 낯선 상황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노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표의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청룡열차를 타는 것 같은 삶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일관되게, 마치 오른쪽 레일을 하나님의 목표의식이, 왼쪽 레일은 내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두 레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다리타기 같이 보이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일관성, 하나님의 일관성을 붙잡고 나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정말 사다리타기와 같음을 실감할 수 있는 삶입니다.
예기치 않는 문제들이 툭툭 불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관성을 기억하며 나의 일관성을 유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복된 삶을 오늘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